서울 대학로 '인기 연극' 광주 무대에

'키스할까요?' '양덕원 이야기' 등 내년 7월까지 6편 공연

100~300석 규모의 서울 대학로 극장에서 공연되는 '작은 연극'들 가운데는 히트상품이 많다.

하지만 이런 작은 연극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 지역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행여 지방 공연을 하더라도 대극장용으로 바뀌어 공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유·스퀘어문화관 등을 중심으로 대학로 발(發) 소극장 연극과 뮤지컬이 한달 장기 공연된 것은 지역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이었고, 올해도 '마법사들' 등이 무대에 올랐다.

꾸준히 소극장 연극과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온 광주 기획사 '즐거운 상상'이 광주 MBC이 함께 기획한 '연극이 좋다' 시리즈는 지난 26일부터 내년 7월까지 8개월간 대학로 히트 상품 6편을 공연하는 대장정이다.

첫 테이프를 끊는 작품은 지난 26일(광주 상무지구 우체국보험회관 16층 기분좋은 극장)개막, 오는 12월 26일까지 계속되는 로맨틱 연극 '키스할까요?'〈사진〉다. 연애지상주의자 치과의사 이준휘와 그의 연인 정하니, 간호사 최지숙, 시나리오 작가 이곤 등 4명의 연애이야기를 다룬 유쾌한 코미디극이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로 유명한 에이브 버러우스 작품이 원작으로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광주 공연에는 홍서준·홍예인·박은수 등이 출연한다.

이어지는 작품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옥탑방 고양이', 설명이 필요 없는 코믹 연극 '라이어'의 작가 라이쿠니의 신작 '오! 브라더스', 역시 드라마 히트작인 '내 이름은 김삼순'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연극은 극단 '차이무'의 작품들이다. 국내 대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상우씨가 이끄는 차이무는 문성근·강신일 등 중견배우를 포함 현재 TV와 영화에서 감칠맛 나는 조연 연기를 펼치고 있는 오용·최덕문·박원상·이대연·김승욱 등이 포진해 있다.

'비언소', '거기' 등 대표 레퍼토리를 갖추고 있는 차이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특히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내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시리즈에는 노인들의 봉기를 유쾌하게 그린 '썽난 마고자'와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 '양덕원 이야기' 두 작품이 대기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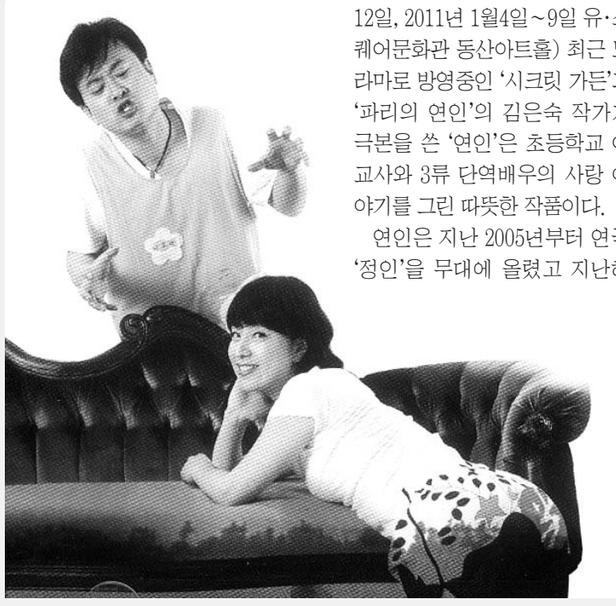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인'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별후愛' 등

지역극단 역시 다양한 공연 승부수

소극장 연극까지 지방으로 밀려들면서 지역 연극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 연극계 역시 장기 공연과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극단 연인은 뮤지컬 '정인'〈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12월 3일~12일, 2011년 1월4일~9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최근 드라마로 방영중인 '시크릿 가든'과 '파리의 연인'의 김은숙 작가가 극본을 쓴 '연인'은 초등학교 여교사와 3류 단역배우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따뜻한 작품이다.

연인은 지난 2005년부터 연극 '정인'을 무대에 올렸고 지난해 배창희씨가 음악을 맡아 뮤지컬로 각색, 한달간 장기 공연 한 바 있다. 김하정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종필·정숙희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3만원(인터넷 예매시 5000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 문의 010-2488-7799.

푸른연극마을은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별후愛'를 무대에 올린다. 12월 18일~25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어머니…'는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여주인공 인희가 암선고를 받고 가족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주인공 인희역을 맡은 이당금씨의 연기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연극이다. 티켓 가격 2만5000원(12월 15일까지 예매 시 최고 25%할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으로 쓴 시' 박노해 사진전에 초대합니다

12월 3일~30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내달 30일 광주 찾아 관람객과 만나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박노해 작 '노동의 새벽' 중.

단 한 편의 시로 이 땅의 수 많은 젊은이들이 새벽마다 쓴 소주를 마시게 한 사람, 그가 광주에 온다. 이번에는 시집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로 형상화한 사진이다.

박노해 시인이 오는 12월3일~30일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나 거기에 그들처럼'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중동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포함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사람과 풍경을 담아 선보인다. 1998년 출소 이후 10여년간 찍었던 사진 13만여장 중 수동식 필름 카메라와 35mm 렌즈만으로 찍은 흑백사진 120여점을 고른 것이다.

소녀가 감당해야 할 전쟁의 참상은 '폭격 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의 제목으로 카메라 앵글에 잡혔고,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노을녘에 종려나무를 심는 사람'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밖에 페루의 11살 어린 가장, 땅콩죽을 끓여줬던 볼리비아 여인, 페루 수도 리마의 달동네인 산 크리스토발 마을, 팔레스타인 여인의 모습 등 세계의 가난과 분쟁 현장을 형상화했다.

'폭격더미에서 살아나온 사나 샬흡(13세)'

이 모든 작품은 그가 시를 정규 과정을 통해 배우지 않고 썼듯 따로 공부하지 않고 탄생했다.

개막식이 열리는 12월3일 전시장에서 박노해를 만날 수 있고, 전시가 끝나는 12월30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열린다. 또 전시 수익금 전액은 전 세계 분쟁지역 이웃들을 위해 쓰여지고, 전시작을 묶은 사진집 '나 거기에 그들처럼'도 함께 발간됐다. 〈느린걸음출판사·10만원〉

함평에서 태어난 박노해는 공장 생활의 고통과 희망을 담은 '노동의 새벽' '참된 시작' 등의 시집을 냈다. 노동운동을 하던 중 투옥되기도 했다. 문의 062-383-007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휘호 경매

내달 7일 유스퀘어문화관

고 김대중 전대통령 내외의 휘호와 고미술품 등이 광주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A옥션은 오는 12월7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서양화 76점, 한국화 71점 등 203점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매를 연다.

이번에 출품된 김 전 대통령의 휘호는 "봄 기운이 은덕을 베풀어 모든 생물이 화려하게 빛난다"(양춘포덕택 만물생광휘·陽春布德澤 萬物生光揮)는 뜻을 담고 있다.

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경천애인·敬天愛人)는 내용을 쓴 이희호 여사의 휘호도 함께 선보인다.

이희호 작 '경천애인'

이 밖에 김창열·김종학·이우환·임직순·오승윤·천경자·김기창·허백련·채용신·허련·이하응·변관식·이상범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한다. 문의 02-725-88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오일, 청소년 시집 '그래도 괜찮아' 출간

지난 10월 첫 시집 '화려한 반란'을 출간했던 안오일(43) 시인이 최근 청소년시집 '그래도 괜찮아'(푸른책들 펴냄)를 펴냈다.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2010 청소년 저작 및 출판지원사업' 당선작이다.

"시는 어렵고 자신들의 생활과 똑떨어진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없애주고 싶어 청소년시를 썼다"는 안 시인은 절실한 체험과 건강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강한 긍정과 희망을 담은 다양한 소재의 시를 한데 엮었다.

표제작 '그래도 괜찮아'는 별이 총총 뜬 가을밤 의지할 곳 없는 불안한 자신에게 "괜찮다"고 주문을 걸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안 시인은 자신이 청소년 시절 겪었던 절실한 체험과 건강한 상상력으로 그동안 터트리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오롯히 전한다. 시인은 그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담아두었던 청소년들의 마음을 깊은 속내까지 파고들어 그들이 웃고 울고 반항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편의 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 시인은 목포 출생으로 제8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 한국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www.geumsoojang.com
송년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희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운 연인과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렛미인(15세)/더콘서트(전체)	1관	스카이라인(15세)
2관	더콘서트(전체)/두여자(18세)	2관	이층의악당(15세)
3관	불량남녀(15세)/이층의악당(15세)	3관	초능력자(15세)
4관	이층의 악당(15세)	4관	소셜네트워크(15세)/쏘우(18세)
5관	언스토퍼블 (12세)/쏘우 (18세)	5관	페스티발(18세)/두여자(18세)
6관	듀데이트 (18세)	6관	렛미인(15세)/불량남녀(15세)
7관	스카이 라인 (12세)	7관	언스토퍼블 (12세)/부당거래(18세)
8관	소셜네트워크(15세)/초능력자(15세)	8관	듀데이트(18세)
9관	부당거래(18세)	9관	더콘서트 (전체)
10관	초능력자(15세)	10관	초능력자 (15세)/이층의악당(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스카이라인(12세)	최고급관
2관	스카이라인(12세)	
3관	이층의악당 (15세)	
4관	소셜네트워크(15세)	
5관	더 콘서트(전체)/ 쏘우3D (18세)	
6관	듀 데이트 (18세)/ 초능력자 (15세)	
7관	렛미인 (15세)/ 이층의악당 (15세)	
8관	부당거래(18세)/ 페스티발 (전체)	
9관	초능력자(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CINUS

1관	이층의 악당(15세)
2관	초능력자 (15세)
3관	렛미인(15세)/ 페스티발 (18세)
4관	쏘우3D(18세)/ 소셜네트워크 (15세)
5관	부당거래 (18세)
6관	듀데이트 (18세)
7관	스카이 라인 (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